강물처럼 깊은 인심으로 소통

불교문화클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㉛ 봉미산 신륵사

여주 신륵사 극락보전과 다층석탑

강 건너에서 본 신륵사와 강월헌

지공 · 나옹 · 무학 3화상 영정

신륵사 입구 상가마을

남한강 주변은 방금 물감을 풀어서 그린 그림처럼 촉촉하다. 이리 저리 몸을 비틀며 흘러온 강물은 신륵사 앞에 이르러 속도를 늦춘다. 강물은 이곳에서 여유를 지니고 신륵사와 함께 생각하고 즐거워하며 나이를 먹어 왔을지도 모른다.

신륵사는 마음씨 좋은 계모 같이 솟은 봉미산에 터를 닦았다. 원효 대사가 창건하였다고 하는데 확실한 근거는 없다. 나옹 선사가 머물렀던 곳으로도 유명한 절집이다. 1472년 영릉의 원찰로 삼아 보은사라 부르기도 하였다. 세조는 부왕 세종의 능침으로 신륵사를 지정하고 크게 중수하여 한때는 가람이 200여 칸에 되는 대찰이었다고 전해진다.

고려시대 대각 국사의 제자 도원 스님이 중수했고 고려 말에는 각신 · 각주 스님이 개수를 했다. 나옹 선사가 친필 현판을 '천추만세'라고 써서 걸었는데 그는 신륵사에서 열반하였다.

쇠지팡이를 가로 날려 휴휴암에 이르러
쉴 곳을 얻었거니 이내 쉬었네
이제 이 휴휴암을 버리고 떠나가거니와
사해 오호에서 마음대로 놀리라.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선사의 도력이 남다르게 느껴진다.

신륵사에는 창건설화가 있다. 원효 대사의 꿈에 흰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 연못을 가리키며 신성한 가람이 설 곳이라고 일러준 후 사라졌다. 연못을 메워 절집을 지으려고 하였지만 용이 연못을 지키고 있어 짓지 못하였다. 원효 대사가 7일동안 기도로 정성을 드린 뒤 9마리 용이 승천하여 연못을 비워 절집을 지었다고 한다. 원효는 극락보전을 짓고 경내에서 좀 떨어진 야산에 7층 전탑을 세웠다. 그런 연유인지 사하촌 천송리 사람들은 벽절이라고도 부른다.

절집 이름에도 유래가 있다. 고려 고종 때 강 건너 마을에 용마가 나타나 걷잡을 수 없이 사나워 사람들이 붙잡을 수가 없었단다. 그 때 인당 대사가 나타나서 용마의 고삐를 잡자 말이 순해졌다. 이것을 두고 신력으로 말을 제압하였다는 뜻으로 신륵사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사하촌에서 간광철 이장님을 만났다. 천송리는 300가구에 420세대가 살고 있는 도시와 농촌이 접목되어 있는 마을이다. 농사는 소규모로 짓고 대부분 회사를 다니거나 장사를 하며 생활을 한다. 원래 천송리는 신륵사가 있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어 자연마을을 이루어 살게 되었다.

"사하촌 어머니들은 대부분 자녀들을 위해 쌀을 이고 절집을 드나들며 정성을 들였지요. 지금은 옛날의 정성만 못한데 이유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라 주로 불전을 농산물로 바쳤지요. 무게가 많이 나가는 농산물을 스님들이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듯하자 마음이 상해서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초하루나 보름에 절집에 들러 정성들이던 사하촌 어머니들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7년 전 절집과 사하촌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조계종의 계획에 따라 일주문 안에 살던 민가들을 산문 밖으로 이주시켰다. 군에서 개발을 하여 저렴하게 분양을 했는데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서로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크게 무리 없이 해결되었다. 절집과 사하촌 사람들은 물길을 닮아 집요하게 욕심을 부리는 일이 없었던 듯하다.

천송리 사람들은 강을 건너는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돛단배를 이용하였다.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도 시간 맞춰 포구로 나와 배를 타고 강을 건너 다녔다. 마을 사람들 중 간씨네만 어부 노릇을 하며 배를 부렸다. 배 삯은 일 년에 두 번 받았는데, 여름에는 보리 2말 가을에는 쌀 2말을 받았다. 그것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아 대부분 고기를 잡아 매운탕 집에 팔아서 먹고 살았다.

"남한강의 물길은 사람들에게 길이 되기도 했지만 때로는 악마로 변하여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했지요. 장마철을 지나며 엄청나게 불어난 수위가 들을 삼키고 집을 위협하기도 하였지요. 돼지와 닭이 떠내려가는 붉은 강물의 노도 때문에 강은 거대하게 부풀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은 강물의 반항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름철 익사사고가 나면 절집에서 넋을 건지는 재를 올려 주었어요." 사하촌 사람들의 궂은일에 절집은 정성을 기울여 마음으로 보듬은 듯하다.

신륵사 앞 이포와 조포나루터는 영월, 충주에서 내려오는 뗏목들이 거쳐 가는 곳이었다. 쌀, 항아리, 배 등을 싣고 바람이 불면 돛을 달고 바람이 없으면 삿대로 끌고 다녔다. 조포나루가 유명했던 것은 지금은 없어진 수여선이 때문이란다. 돛단배로 조포나루터까지 와서 수원 가는 기차를 타고 가서 물건을 팔고 다시 바람을 이용하여 거슬러 올라가는 사공들의 뱃길이었다. 나루터가 문화와 문화를 연결해주는 다리였던 셈이다.

조포나루터가 유명하게 된 것은 1963년 안양 흥안초등학교 학생들이 소풍을 왔다가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49명의 생명을 잃었던 사건 때문이다. 그 이후로 다리가 생기고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고기와 물과 추억을 제공했던 강의 이미지가 사라졌다. 그러나 서울 도심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절집에 드나들게 되면서 마을사람들은 여관 영업을 하고 기념품점을 차려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

한 때 아버지가 스님이었다는 김영구씨는 옛날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신륵사는 주로 대처승들이 머물던 절집이었는데, 조계종 정화 운동을 할 때 최원정 스님이 오셨지요. 옛날에는 스님이 많지 않았고 전부 노스님들이었어요. 조계종 사찰이 된 후로 오신 이정무 스님은 정말 기억에 남는 스님입니다. 스님은 돈을 모르는 분이었지요. 학생들에게 공부방을 만들어서 한문도 가르쳐 주었고 <반야심경> 같은 불교 공부도 가르쳐 주면서 먹이고 재워주었지요. 그것이 지금의 템플스테이와 비슷합니다. 그때 사하촌에는 대처승의 자손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때 조포나루터에는 신륵사 스님의 전용배도 있었다. 동네 젊은 사람들이 스님이 강을 건너 갈 때나 여주시장에 나갈 때 뱃사공이 되기를 즐겨했다. 그것은 스님이 배고